

# 전남 '미래이동수단·첨단소재' 육성 탄력

###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2개 과제 선정 국비 160억 확보...지역 산업 고도화·다각화 기대

전남도의 미래이동수단·첨단소재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융합기기를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과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 기반 강화사업'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60억원(총사업비 30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융합기기는 기계, 전자가 융합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조소형전기자,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드론 등이다. 전원시스템은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 탑재형

충전기 등 전력 변환 및 저장장치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다각화 전환을 위한 지역 성장정책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공모를 추진, 그동안 전문가 사전 검토와 민간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전남 2개 과제를 포함한 최종 27개를 선정했다.

'융합기기를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195억원(국비 100억원)이다.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e-모빌리티 관련 산업이 직 접화 된 영 광 대마산단 3천306㎡ 부지에 전원시스템 평가센터를 짓는다. 평가 장비 10종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증지원, 단체 표준안 도출을 수행한다.

전국 최대 규모 비행시험 공역이 위치한 고흥에는 드론 실증운용 DB를 구축한다. 나주혁신산단 에너지융합캠퍼스, 순천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전원시스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제품 개발부터, 평가, 실증 및 양산이 가능한 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의 총사업비는 106억원(국비 60억원)이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전남지역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장비, 기술, 전문인력 등 연계 협력을 통해 효과적 기술사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선 융합

제품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 개선을 실시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반 시설을 활용한 제품 경쟁력 분석, 시제품 제작, 구매 승인까지 상용화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전남지역 혁신기관은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금속소재), 세라믹 산업융합지원센터(세라믹),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고분자),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정밀가공) 등이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사업별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사업 평가를 대비해 전문가 초청 가상 발표회 개최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결과"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남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 인프라 구축, R&D, 인력 양성 등 종합적 산업생태계를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출범 (세인공지능)과 AR·VR(증강·가상현실), 드론 등 지역 내 4차 산업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향상하고, 제조업과의 융합 과제를 수행을 통한 신 비즈니스 영역 창출을 위한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발대식'이 2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문인 청정관과 김성진 테크노파크원장, 이형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20여개 회원사, 자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북구 제공

# R&D 예산 20조 시대...전남도 국비 확보 총력

### 3·7일 R&D 활성화 실국·사업본부 순회 연찬회

전남도가 국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공모사업 추진 프로세스 등 사업 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대응, 국비 확보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3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7일 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에서 도와 사업본부 R&D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전남 R&D 활성화 순

회 연찬회'를 개최한다.

3일 연찬회는 전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 직원을 대상으로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서형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실장, 박용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책임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중양부처 R&D

업 기획절차 및 예산편성'이란 주제로 진행한다.

7일 연찬회는 전남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기술원 직원을 대상으로 안상중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팀장이 해양수산 분야 R&D 사업 추진절차, 안영진 전남테크노파크 팀장이 전남R&D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예타 진행 절차, 기획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강연한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중앙부처별 R&D

예산 편성·심의 과정, 국가사업의 기획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 R&D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갑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앞으로 국가 R&D 예산 확보 전국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전남R&D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캐릭터 버스 '두다다쿵' 광주 도심 달린다

### 내일부터 하루 평균 8회 운행...매일26번 노선 배차

광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4일부터 광주만의 캐릭터 버스 '두다다쿵'을 운행한다.

'두다다쿵' 캐릭터 버스는 2014년 EBS가 최초로 광주 CGI센터 입주기업인 아이스크림스튜디오㈜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해 방영한 3D 애니메이션을 버스로 형상화 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두다다쿵'은 다기능 캠퍼스인 핑카를 타고 환상의 세계인 '아무도 모르는 숲'을 배경으로 여섯 살 꼬마 두더지인 주인공 두다가 같은 나이의 소년인 다다와 함께 자연 속을 탐험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당시 EBS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재방송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2014년 5월에도 '두다다쿵' 버스를 운행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5·18민주화운동 등이 겹치면서 9일 간만 운행했다.

올해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패밀리



버스 1대를 고정적으로 배차해 하루 8회 정도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노선과 시간은 광주시버스운행정보(bus.gcity.net) 게시판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캐릭터 사용허가와 캐릭터버스 캠퍼스작업, 차내 안내방송 등 세부적인 준비를 마쳤다.

요즘은 정규노선에서 캐릭터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캐릭터 버스 '두다다쿵'이 2019광주세계수업연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와 함께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도움을 주고 친근한 시내버스 이미지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 5월 순천만서 가족 사랑여행 즐기세요

### 도, 곡성 기차마을·구례 섬진강 대나무숲 등 추천

전남도는 5월 행복한 가정의 달이자 사랑의 달을 맞아, 온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5월의 프리포즈'를 테마로 정해 순천만국가정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구례 섬진강 대나무숲 등 3곳을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자연 속 휴식공간을 꿈꿨던 전 세계인의 소망과 문화의 숨결이 담긴 세계 각국의 정원이 있다. 여기에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있다. 다양한 생태체험도 즐길 수 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대표 관광지다. 연간 1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기차마을 내 '1004 장미공원'은 사랑의 대명사인 세계 희귀 명품 장미가 만개해 향긋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섬진강 대나무숲길은 구례읍 문척교에서 구례구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섬진강 둑길로 500여m가 이어진다. 푸른 숲길의 정취가 절정을 이루는 대숲에서 대나무 노랫소리를 감상하고 섬진강을 사색하며 걷다보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된 섬진강 벚꽃길 등을 마주하게 된다.

김명신 전남도 관광과장은 "5월 가정의 달은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아보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소중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며 "관광객 6천만 명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도록 매력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 "인권친화 경영 선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일 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임직원 및 노동조합, 시민대표와 함께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공사는 이번 선언을 통해 인권 국제기준 지지를 비롯한 11개 사항을 실천할 것을 선포했으며 노미연 국가인권위원

회 강사를 초청, '인권감수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경영 문화 확산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공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등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최권범기자

## 5·18 39주년 광주정신포럼

# 전국의 5·18들-5·18의 현재와 정신계승

**2018년 5월 9일(목)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 강당**

광주매일신문은 5·18 39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공동으로 '전국의 5·18들-5·18의 현재와 정신계승'을 주제로 광주정신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민족민주열사들의 삶을 통해 5·18이 광주만의 투쟁이 아니라 1980년대를 관통하는 민주주의의 각성과 역사적 전환의 상징이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 속 전 국민의 5·18로 승화시키고 계승해나가는 이번 광주정신포럼에 광주·전남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 박래균 '인권재단 사람' 소장(4·16연대 공동대표)

**토론자**

- 고호석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 김철원 광주mbc기자(광주학살진상규명관련 열사 10인의 기록 '그들의 광주' 저자)

| 주 최 | 광주매일신문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 후 원 | 광주광역시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자치연구소(062-650-2006)